

<2022년 4월 27일 수요일>

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

[시대 성경]

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.

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여 위해 주며 살아 주었나니,

그러므로 그 심정을 알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
그 말씀을 행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.

그는 너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날에 도우셨고,
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지 않게 해 주셨고,
은혜의 날에 은혜를 주셨고, 사랑할 때에 사랑해 주셨고,
구원의 날에 구원해 주셨고, 가난한 때에 도와 부하게도 해 주셨느니라.

하나님은 성령과 너희를 구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베푸셨느니라.

[이사야 49장 8절]

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
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.

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
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.

[로마서 8장 12절]

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,
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.

- 금주에는 <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>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.

지금 이때,
하나님이 왜 ‘이 말씀’을 하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.

- 올해 6월 1일이면 <섭리사의 나이>도 ‘44세’가 됩니다.
<섭리사의 신앙들>도 모두 성장되고 장성되어 어리지 않습니다.

<사람>이 크고 장성하면 ‘부모의 은혜’를 갚으며 살아야 하듯이,
<섭리사>도 이제 ‘하나님의 은혜’를 갚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.

- <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라고 하신 말씀>은

첫째,
<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 않고 사는 자들>이 있으니,
이제는 모두 <은혜를 갚으며 살라고 하신 말씀>입니다.

- 둘째,
<하나님께 받은 은혜>를 갚으며 살아야,
<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>가 헛되지 않고,
<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람과 목적>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.

- 셋째,
<은혜 갚는 삶>을 살지 않으면,
‘은혜의 보람’을 못 느끼고, ‘은혜의 가치’도 모르니,

<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크고 큰 은혜>를
귀하고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, 헛되이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.

- <하나님이 주신 은혜>는
<하나님과 성령님>과 같이 써야 제대로 쓰게 됩니다.

<사람의 지능>으로는
<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>를 제대로 못 씁니다.

<은혜 갠 삶>을 살면서 써야,
‘그 큰 은혜’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.

- 넷째,
<하나님의 은혜를 갠 삶을 살라는 말씀>은
<은혜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>입니다.

- 하나님은 <말>로만 ‘은혜’를 주지 않으시고,
<실제>로 ‘은혜’를 주셨습니다.

<시대 말씀>을 주어 구원시켜 주시고,
<병>도 고쳐 주시고, <차 사고>와 <죽을 고비>에서 살려 주시고,
<가난과 각종 어려움>에서 도와주시고, <경제 축복>도 해 주시고,
<자기 자신도,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>을 해결해 주시며,

하나님은 <실제>로 ‘은혜’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

-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
<말씀>을 주어 ‘은혜’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.

이와 같이 <실제>로 ‘은혜’를 베풀어 주시니,
우리도 <실제>로 ‘하나님의 은혜를 갠 일’을 해 드려야 됩니다.

- 다섯째,

하나님이 <실제 은혜>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,
우리는 ‘가진 것’이 없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.

<하나님의 은혜>를 받고,
우리도 하나님께 <실제 은혜>를 드려야,

<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>을 살면서
<그 은혜>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쓰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.

고로 <은혜>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.

- <지금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>도, <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>도

<하나님의 은혜>에 감사해서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와 같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.

그러니 하나님은 감격해 하며 받으시고,
우리와 <섭리역사>를 펴 나가시면서
<시대의 목적>을 이루고 기뻐하며 쓰십니다.

- 이같이 <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>을 살아야,
‘이상세계’를 이루게 됩니다.

<성령의 감동>을 받고, 이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.

- 여섯째,
<은행의 빛>을 안 갚으면
‘집’이나 ‘사업체’가 넘어가서 없어지게 되듯이,

<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>를 받고
<그 은혜>를 안 갚고 살면 ‘신앙’을 뺏기고 끝나게 되니,

<은혜를 갚는 삶>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.

- <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이 사는 삶>이
<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삶>입니다.

- <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,
거기에 따라 같이 행하는 삶>이 ‘은혜를 갚는 삶’입니다.

항상 <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>을 살아야 됩니다.

- <하나님을 만날 때>까지 기도하여 물어보면,

하나님도 <이 시대 은혜를 갚는 일>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,
성령님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<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>을 살면, ‘신앙’ 이 살아나고 부활됩니다.

- <사도바울>도

‘우리가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라,
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.’ 고 깨닫고,

<그때 처한 일들>을 목숨 걸고 행했습니다.

- 우리도

천 년 동안 영원히 <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>을 살아야 됩니다.

- 마지막으로 <깊고 깊은 말씀>,
<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드리는 말씀>을 해 주겠습니다.

-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>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<모든 인생들>에게 ‘수천 가지의 은혜’를 베풀어 주십니다.

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<하나님>을 믿지도 않고,
<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>도 모르고,
<은혜를 갚는 삶>을 살지도 않다가 죽습니다.

하나님은 이를 아시면서도
<태양>을 비추듯, <지구>가 돌듯,
변함없이 <은혜>를 베풀어 주시며 행하십니다.

- 인생들이 <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>,
<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육 인생, 영 영원토록 사는 목적>을
이루고 살든지, 이루지 못하고 살든지

하나님은 <모든 인생들>을 사랑해 주시며,
‘은혜’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

- 기도 중에 하나님께 왜 그러하셨냐고 물어보니,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나 여호와>는
‘전지전능하고, 무소부재하고, 영원불변한 존재자’ 다.

<천지 만물>과 <지구>와 <인간>을 창조했으니,

<전능자>로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든지, 사랑하지 않든지
‘은혜’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이를 깨닫고
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심정〉을 알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,
〈그 은혜를 갚는 사랑하는 자들〉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.